

[2024년 4분기 서대문구가족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24년 4분기 서대문구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1:00~12:3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진선미관 1층 자연숨씨
작성자	강은희 운영지원팀장		
참석자	- 운영위원 : 전종설(위원장), 박현미, 이정오, 강주현(센터장), 박수미 위원 <u>총 5 명</u> - 기 록 : 강은희 운영지원팀장		
회의내용	진 행 순 서	진 행 내 용	
	(1) 운영 위원회 개회 선언	2024년 4분기 서대문구가족센터 운영위원회 개회 선언	
	(2) 참석자 소개	각 운영위원 소개 :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 총 5명 소개	
	(2) 운영위원장 인사 말씀	[전종설 위원장의 인사 말씀] •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마감을 잘 하고 내년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전 회의록 및 조치 사항 보고	[강주현 위원 전차 회의 및 조치 사항 보고] 1) 전차 회의 내용 (1) 2024년 6월~2024년 8월 사업실적 및 추진성과 보고 - 사업실적 및 사업 운영 현황 보고 (2) 2024년 추경예산(안) 보고 (3) 안건 및 기타보고 -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관련 신규사업추진 “우리, 행복이 여기에 in 흥제폭포” - 서대문구가족운동회 다(多)가(家)가다(GO!) 운영 예정 보고 2) 전차 회의 조치사항 보고 (1)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관련 신규사업 “우리, 행복이 여기에 in 흥제폭포” 운영 - 스냅사진 촬영 : 9월, 11월 45가정 124명 참여 - 자율사진 촬영 : 10월 30가정 83명 참여 - 사진전 : 서대문구청 1층 12/16~20, 흥제카페폭포 2층 야외 사진전 12/19~20 (2) 서대문구가족운동회 다(多)가(家)가다(GO!) 운영 - 10월 9일(수) 09:00~13:00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잔디구장 - 196가정 672명 참여, 날씨도 좋고 넓은 운동장에서 운동회 진행.	

	<p>(5) 사업실적 및 추진성과 보고</p>	<p>[2024년 9월 ~ 2024년 11월 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주현 위원 : 2024년 9월~2024년 11월 사업 보고 • 영역별 사업실적 보고, 만족도 4.8점 • 사업 참여자 실인원 남성 3,603명, 여성 5,869명으로 꾸준히 남성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주요사업 보고 • 부모역할지원사업은 계속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올해는 대규모로 변형하여 진행. 연구소 대표/소장,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등 부모특강으로 진행 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소극장 2회, 서대문구청 강당 1회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 하였음. • 1인가구지원사업은 1인가구 역량강화, 취미생활, 사회적관계망지원사업 등을 진행. 사회적관계망지원사업과 멘토링에 집중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7월 18일 개소 이후 공간 이용 하시는 분이 많음, 젊은청년-중장년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 연말에 물품대여 사업 운영중으로 안마기가 인기가 좋음.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사업 - 북가좌2동에 결혼이민자가 부녀회장이 되면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하여 북가좌2동 마을 축제 및 서대문구 김장 담그기 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정착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있음. • 가족운동회는 운동회장에 지역주민이 가득 찰 정도 운영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사업의 경우 일기 시리즈 중 전원일기로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손자녀 돌봄, 추석명절 3대가족 놀이등으로 프로그램 진행함. •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이 담당자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올해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극장을 대관하여 성과공유회를 아이들의 장기자랑처럼 운영. 할머니와 아버님들도 초대하여 아이들이 엄마나라말이 많이 늘었다며 뿌듯해 하였음. 올해는 일본어 반이 없었으나 성과공유회를 보시고 일본어 반 운영 요청이 있기도 하였음. • 저소득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농협카드를 통해 초등, 중등, 고등대상 40만원-50만원-60만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여가부 일괄 예산편성으로 228명 배정 되었으며, 24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여 120명정도 지원하였음.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사업으로 초등대상 멘토링 진행, 지역주민 대상 일타스터디는 결혼이주여성이 강사가 되어 자국의 문화 및 여행 회화 등을 알려주어 북가좌동의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 의상 체험등도 있어 굉장히 즐겁게 참여 함. 결혼이주여성분들도 자국 문화를 소개하며 자긍심을 갖기도 함. • 유학생 지원사업의 경우 연세대 CIEE 라고 미국 단기 연수 학생들이 지역내 봉사활동을 요청하여 아이들과 1:1로 수업 진행, 유학생 대상 취업특강을 통해 한국 취업 시장 이해. 실제로 행정사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았으며, 오늘도 유학생사업 평가회를 함께 하고 있음. 서울대 학
--	---------------------------------------	---

		<p>생 중 12월말까지만 비자가 되어 비자 연장등에 대한 행정 지원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의 경우 중장년층 대상 집단상담을 진행 하였으며, 저희 센터도 영유아 대상이 줄고 있음. 노부모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서울시 노인상담소를 통해 연계를 받아서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았다며 상담이 종료 되었지만 단독방을 만들어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자 하여 6가정 정도 자조모임 지원 예정. • 온가족보듬사업의 경우 홍연초와 연계하여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 취약가정의 경우 캠핑의 경험이 없는데 파주로 캠핑을 가서 팀빙딩, 가족운동회 등 즐겁게 참여함. <p>○ 기타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센터 2층, 3층 화장실 유리문이 너무 무거워 아이들이 밀기가 어렵고 갑자기 닫히면 아이들이 손이 끼일 위험이 있어 보조장치를 했으나, 이번에 가벼운 나무문-화장실용 방수문으로 교체 하였음. ○ 강주현 위원 : 가예산 보고전 25년 사업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24년에는 온가족 보듬사업이 국정사업으로 비중있게 하여 활발히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5년에는 상담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라는 여가부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 운영의 변동이 있을 예정 ○ 강주현 위원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타센터에서는 힘들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많은 도움으로 저의 센터는 교육과정 및 청소연구소 연계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었음. 120시간 이수등이 안되어 포기하는 센터가 많기도 함. ○ 강주현 위원 : 25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진행하여 자격 취득까지 해보면 어떨지 계획해 보기도 함. 청소 같은 경우 사람이 없을 때 청소를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차이 등 걱정이 되기는 함. ○ 박현미 위원 : 요양보호사 교육의 경우 교육시간도 상당히 길고, 저희 센터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전담 강의실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하는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 ○ 이정오 위원: 주변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음. 그러나 교육과정이 코로나때는 인터넷강의로 진행 되었으나, 올해는 교육비 증가와 대면 교육등 최근에는 교육이 쉽지 않은 것 같음. ○ 박현미 위원 : 자격을 취득 후 서로 부모를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정과 문화 차이 뿐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 따라 요구사항이 많아서 컴플레인이 많고 교체가 비번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압니다. ○ 강주현 센터장 :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요처가 많고 취업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음. ○ 박현미 위원 : 교육비 부담이 90% 정도로 높고, 이전처럼 자격취득이 쉽지 않은 것 같음.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육과정이 없지만 타구 센터는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	---

- 이정오 위원 : 교육기관의 경우도 수입에 대한 기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주현 센터장 : 수요처가 많아서 취업하기가 쉽고, 시부모님들이 노무 모가 많아 계획 하였음.
- 강주현 센터장 : 2025년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잘 부탁드립니다. 청 소 관련 과정을 더 해야 할까 생각 합니다.
- 박현미 위원 : 개설이 계속되니 가능합니다. 언어에 대한 준비가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통역이 계속 있지 않아 언어가 잘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열의 있게 참여 하였음. 그러나 언어가 되어 야 공감대 형성 등이 용이하고, 직장생활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 가 되어야 함.
- 강주현 위원 : 언어 잘 준비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 교육 참여의 열의는 높음.
- 강주현 위원 :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관련하여서도 잘 검 토 하겠음.
- 이정오 위원 :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작하면 공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 아 취득이 쉽지만 교육 시간 추가 및 교육비 자부담이 부담이 될 수 있음.
- 박현미 위원 : 자부담은 센터에서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 에서 요양보호사의 인원 조정을 하려고 해서 취득이 어려워짐.
- 강주현 위원 : 그러나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이정오 위원 : 자격은 있으나 취업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그리고 일이 힘들다 보니 일을 하지 않음.
- 박현미 위원 :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 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음. 노인 돌봄보다 아이돌봄을 선호 하는 것 같음.
- 이정오 위원 : 오늘 사업 보고 중 가족상담 내용을 듣고 주변에 시부모 (치매)와 사는 경우가 있어서 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싶음. 요양원은 싫으나 가정 돌봄 부담이 높음. 실종 안전문자가 계속 발송되 어 오는데 가정에서 모시다가 밖으로 나가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 강주현 위원 : 직업훈련 사업 관련하여 내년에도 깊이 고민해보고 센터 팀장과 논의 하도록 하겠음. 노부모돌봄 집단상담의 경우 참여자가 너 무 좋아했으며, 센터에서도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음. 프로그램 이후에 도 자조모임을 위하여 내년에는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전종설 위원장 : 아까 행정사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가 여러 가지 비 자 등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학생 말고도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 접수 시에도 행정사 전용 창구가 있어 보다 빠르게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연계하여 자문을 받으면 좋겠음.
- 강주현 위원 : 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자 협의체 위원으로 모시고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려고 함.
- 전종설 위원장 : 잘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법적인 자문 등 다문화가족 및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가예산(안)보고]

- 강주현 위원 : 2025년 가예산(안) 보고함. (회의자료 참고)
- 2025년 예산이 많이 줄어 113,000,000원 가량 감소 하였으며, 얼마전 민원도 있었는데 방학줄 돌봄 예산도 삭감되어 사업비 중 자부담도 감소하게 되었음.
- 24년 신규 사업인 교육활동비의 사업 대상이 일괄적으로 배정 되었으나 120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25년 확정내시에는 예산 감액
- 안심장비, 이중언어사업비, 구비사업비 등 전체적으로 감액, 후원금은 미확정된 건으로 감소, 법인전입금은 동일하게 편성 되었음.
- 세출 에서도 많이 감소 되었으며, 올해 채용 공백이었던 인력을 내년도에는 채용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증가 되었으나, 구비 기자재, 유지보수 비용이 전액 편성이 되지 않아 일부 금액만 편성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되었으나 건강가정 일부와 다문화지원 구비는 편성이 되기도 함.
- 강주현 위원 : 25년 사업 중 서울시-성남시에서 진행 하였던 나는 절로 라는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타센터도 구청에서 예산을 3천만원 정도 받아 진행 예정, 그러나 그 사업이 가족센터의 사업인지는 고민, 타 프로그램에서는 60:1로 지원율이 높았다고 함.
- 강주현 위원 : 신청자의 재직증명, 범죄전력조회 등으로 1차 선발하여 사업을 운영 하고자함.
- 전종설 위원장 : 성남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 강주현 위원 : 시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강주현 위원 : 저출생에 맞추어 결혼은 나중이더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음
- 전종설 위원장, 전체 위원 : 그러나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작음. 센터에서 너무 무리 되지 않게 운영하길 바람.
- 강주현 위원 : 센터에서도 2013년경 사업 운영 경험이 있음.
- 박현미 위원 :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배워야 하는 안타까움.
- 전체 위원 : 결혼 및 저출생에 대한 자유 의견 논의
- 강주현 위원 : 이상 2025년 가예산(안)과 사업 방향 관련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관련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 전종설위원장 : 네. 2025년 가예산(안) 잘 보고 받았습니다.
- 전체 위원 : 보고 받았습니다.
- 전체 위원 : 추가 의견 없음
- 전체 위원 : 식사 및 기타 논의
- 강주현 위원 : 이상 2024년 4분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종료